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김송*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7. 7. 22(토) ~ 8. 19(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호텔이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기대를 크게 가지지 않는다면 한 달 동안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고, 호텔 식당 밥이 정말 맛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마닐라 주변에 있기 때문에 여행 다니기에 좋았습니다. 학교 시설들도 괜찮았고, 에어컨을 정말 많이 틀어주어서 가끔은 추웠습니다. 학교의 규모는 큰 것 같고, 학교 학생들이 먼저 인사를 해주며 설문 조사를 위해 다가갔을 때는 친절하게 잘 해주었습니다. 학교에 복장제한이 있기 때문에 짧은 옷들은 못 입고 들어갑니다. 슬리퍼나 끈 없는 샌들도 신을수 없습니다. 옷을 잘 생각해서 들고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바퀴벌레나 도마뱀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살다보면 괜찮습니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대그룹 수업 3시간, 소그룹 시간 2시간, 멘토맨 수업 3시간 총 8시간씩 수업을 들었는데 중간에 점심시간과 2시간 no class 시간이 있어 휴식을 취하거나 낮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처음 입학하는 날 레벨 테스트를 한 후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대그룹 소그룹 활동을 하면서 친해지기도 하고, 여러 활동들을 하면서 영어로 말하는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단어시험과, speaking, 토익 speaking, 쓰기 시험을 보고, 2개의 에세이를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별로 과제를 내주시기도 하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던 것들이 3주가 지나고 마지막이 될 때쯤에는 어렵지 않게 써내고, 많이 지적당했던 것들을 만점 받기도 합니다. 영어로 말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하기도 하지만 선생님들이 천천히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틀린 문법을 고쳐주셔서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처음과 비교하면 나중에는 장난도 치면서 수업을 이끌어 나가는 분위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지 학생들에게 설문 조사를 하는 과제도 있고, 피피티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업도 있습니다. 후반부에 하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들입니다.</p>

Activity	<p>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p> <p>학교에서 민도르 투어와 마닐라 투어 비용은 지불해줍니다. 민도르 섬에 갈 때 날씨도 안좋았고, 트래픽이 심했기 때문에 왕복 23시간이 걸렸습니다. 호스텔에 이야기 하면 멀미약을 사다주시기 때문에 멀미약을 꼭 먹는 걸 추천합니다. 하지만 섬에 도착해서 수상 활동들을 저렴한 가격에 할 수 있었고 정말 즐겁게 보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1800페소를 따로 지불하고 따가이따이 투어를 다녀왔는데, 모자와 선크림이 필수인 투어였습니다. 말을 타고 올라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편한 복장으로 다녀오면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경치를 볼 수 있었던 여행이었기 때문에 정말 추천합니다.</p>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첫 주에 필리핀 우기 시즌이어서 비가 엄청 많이 내려 휴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외에는 비도 거의 오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한국보다 습하지 않아서 햇빛만 뜨거울 뿐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햇빛이 강해서 선크림은 꼭 꼭 바르고 다니는 걸 추천합니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걱정했던 것 보다는 현지는 평화롭습니다. 하지 말라는 행동은 안하고 가지 말라는 곳은 안가면 안전합니다. 소매치기가 많기 때문에 각자 가방을 제대로 챙기고 확인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명을 주게 되면 우르르 몰리기 때문에 미안하더라도 주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또한 혼자서 다니는 것 보다는 3-4명이서 함께 다녀야 안전한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 술집을 가기 위해서는 현지인들이 사는 곳을 지나야 하는데 조금 무섭습니다. 대부분 한국 사람들을 보면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사진을 함께 찍자는 사람들이나 몰래 찍고 가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습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기대를 엄청 안하고 가는걸 추천합니다. 그렇게 가면 숙소가 나름 괜찮게 느껴집니다. 3인 1실이고, 방 안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살다보면 바퀴벌레도 나오는데 정말 크기가 큼니다. 일주일에 한번 청소</p>

	<p>와 방역을 해주는데 개인 돈은 잘 챙겨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0시가 점호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음날 모여서 에세이를 또 제출해야합니다. 방별로 뜨거운 물이 안나오는 경우도 있고, 변기의 물이 잘 안 차오르기도 해서 가끔은 곤란한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호스텔 로비에 말 하면 빠르게 고쳐주십니다. 숙소의 와이파이기는 한국의 3g보다 느린 느낌이라 동영상은 볼 생각은 사치입니다. 유심을 바꿔 쓰기</p>
식사	<p>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주로 호스텔에서 제공해주는 밥을 먹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가 한국분이셔서 입에는 정말 잘 맞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인 현지 식당은 짠 느낌이 많이 듭니다. 짠 걸 잘 못 드시는 분들에게는 음식들이 안맞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줄리비가 있는데 저렴한 가격이라 자주 찾게 됩니다.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맛집을 찾아서 다니면 현지 음식을 먹어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먹었던 현지 음식들은 웬만해서는 다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p>
교통	<p>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p> <p>우버나 그랩 어플을 이용해서 가고싶은 목적지에 다녔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비용이 오르지만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안되는 가격입니다. 차들은 다 새것들이라 쾌적하고 좋습니다. 4인승부터 6인승 등 인원에게 맞게 차를 불러서 돈을 나눠 내면 작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트래픽이 심해서 예상시간보다 항상 일찍 움직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의 교통은 운전자들이 목숨이 2-3개 있는 느낌으로 운전합니다. 횡단보도나 신호등도 많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야합니다. 조금 가까운 거리는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를 이용하면 완전 저렴한 가격으로 갈 수 있습니다.</p>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기숙사보증금, 여행자보험	688,710	출국 전 사전 납부
합계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 주세요.

에어컨을 강하게 틀어주기 때문에 얇은 긴팔을 챙겨가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돌아올 때 짐이 많아지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챙겨가는 걸 추천합니다. 영어 단어를 많이 알고 간다면 어려운 것이 조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망고를 먹기 위한 과도와 접시를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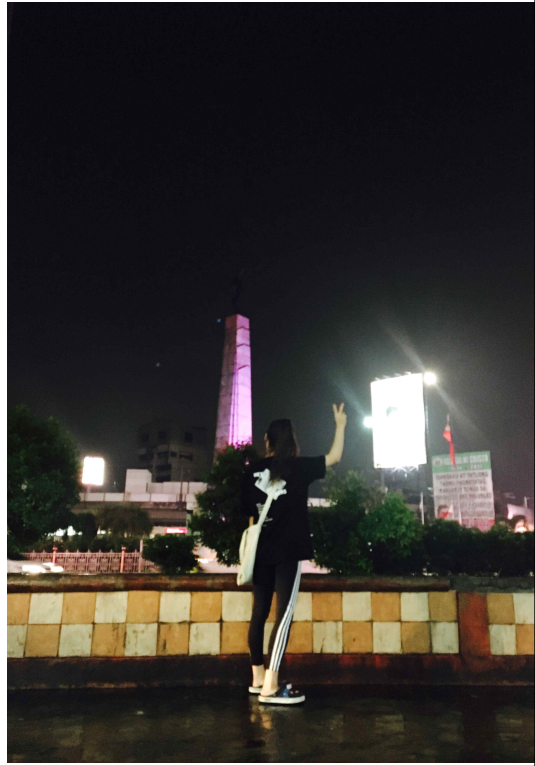
주말마다 마닐라의 다양한 곳들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몰오브아시아나 베니스 등 여러 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을 지불한다면 따가이파이 트립이나 팍상한 폭포도 갈 수 있는데, 팍상한 폭포에 가지 않았던 것을 조금 후회합니다. 큰 돈을 가져가지 않아도 여유롭게 쓰고 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영어를 과연 할 수 있을까 자신감도 없었고, 매 수업시간이 힘듦의 연속이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원어민 선생님들께서 편안한 분위기로 잘 이끌어 주셔서 점차 한 두 마디씩이라도 더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잘 하는 영어 실력은 아니지만 한달 전과 비교했을 때 많이 나아졌습니다. 가끔 수업을 가지 않고 놀러도 가고 방에서 쉬기도 했는데 그것도 그것 나름대로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 현지 음식도 다양하게 먹어보고, 점호 때 지각도 해보며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교통이 정말 복잡했던 것 같고 바퀴벌레의 크기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망고를 사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장점입니다. 앞으로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중요성도 느꼈고, 영어에 흥미도 생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어학 프로그램에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토익 스피킹이나 토익 등 시험들을 공부할 예정이고, 외국인 친구도 사귀어 영어 실력을 더욱 향상 시키고 싶습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p>따가이파이 트립 정상</p>	<p>베니스 물 야경</p>
	
<p>마닐라 투어</p>	<p>몰 오브 아시아</p>



민도로 투어



하이퍼 마켓